



고마움과 아쉬움을 남기며...

3000여 학회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부족한 제가 20대 학회장의 중책을 맞아 학회 대표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쓴 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임사 원고를 준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니 화살같이 빠른 지난 1년 동안 뭘 했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계미년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학회의 긴축운영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회의 연중 행사 및 사업들을 무난히 수행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회원님의 헌신적인 협조가 학회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송기국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전 운영이사님들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산업계가 학회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술 발표회가 산학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봄, 가을 학술대회에서 모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집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장태현, 도춘호, 두 편집장님께서 놀라운 집념과 노력으로 영문, 국문 학회지를 명실 공히 본 학회의 얼굴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시대 조류에 발맞추어, 회원 공지, 회비 납부, 학술대회 및 행사 등록 등과 같은 학회 운영의 많은 일들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준비 시동하였습니다.

이상의 일들로 정진철 전 회장님이 이임사에서 언급하신 씨앗의 싹이 제대로 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충실한 사람과 좋은 열매가 기대될 수 있는 여건을 김영하 신임회장님과 조원호 수석부회장님께서 잘 마련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움과 희생을 아끼시지 않은 김영하 (KIST) 수석부회장님, 김동국 (동국대), 조병옥 (조선대), 정종구 (동부화학) 부회장님들과 송기국 (경희대) 전무이사님, 한양규 (한양대)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이사님들께, 함께 일할 수 있었던 행운이 좋았고 언젠가 다른 기회가 있길 바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학회 발전에 공이 크신 전임회장님과 임원들의 후광에 감사드리며,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큰 발전을 기원하고 가내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2004년 1월 1일
전임회장 이 동 호